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5.9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형 주(02-2156-9870)		담 당 자	김 성 준 사무관 (02-2156-9876)	

제 목 : 서울경제 (2016. 5. 9) 「한국형 IB 자기자본 기준 3조 유지한다」 제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☐ 서울경제신문은 2016. 5. 9일 「한국형 IB 자기자본 기준 3조 유지한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됐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(한국형 투자은행·IB)의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3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.”
 - “자기자본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증권사간 인수합병(M&A)과 증자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.” 등으로 보도

< 참고 사항 >

- ☐ 정부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으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하되,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,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(7~8월)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.